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3월 2일
(월요일)

강북신문 4면

◆인터뷰-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

“고도제한으로 고통받는 주민에 희망주겠다”

4월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방문 계획 “현장 실태 알고 갔으면”

“4대, 6대에 이어 7대에도 주어진 책임 또한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정을 파악하고 공부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백균 의원의 말이다. 이정식·이용균 의원과 함께 특위를 구성한 이백균 위원장은 “강북 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외간 형평 문제 등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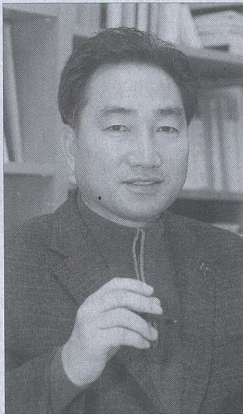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최고고도 특위는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 제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 내 토지주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자연경관지구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1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 받고 있어 이를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다.

▲7대 의정활동과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이 되도록 ‘소신’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강북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외간 형평문제 등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6대 활동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있다면?

-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했던 6대 후반기에 시의원에게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오전 정비사업과 북한산 백련사 입구 화장실 설치 등



이 가장 보람된 일로 꼽을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북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991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의 고도제한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도 높이가 조정된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오는 4월 7일경 강북구 고도제한 지역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는 탁상행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현안, 혹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 백래골도로 확장공사 1차구간이 끝나고 2차구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삼흥연립 앞 건물보상이 끝나는 대로 철거하여

삼흥연립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인수동과 우이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인수초 중학교 부근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어린이공원과 복합건물(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타구에는 1~3개씩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강북구에는 없어 축구동호인들이 타구로 이동해 경기를 하는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4대 때부터 주장해 온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7대에는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주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은?

-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강북중학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를 곧 시작하지만,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람스럽다. 우이동 시민의 광장 앞 도로확장공사에서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 있었는데 소나무를 중앙분리대형태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소나무 이설비용절감과 광릉수목원의 도로를 연상케 하여 운치 있는 곳으로 바꾼 것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의정활동시 꼭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각오와 구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난 의정자료와 구의 지난 업무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민이 원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민 역시 구와 지방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우리 정치인들을 조금씩 변하게 할 것이다.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정말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서울포스트 5면

◆인터뷰-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균

“고도제한으로 고통받는 주민에 희망주겠다”

4월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방문 계획 “현장 실태 알고 갔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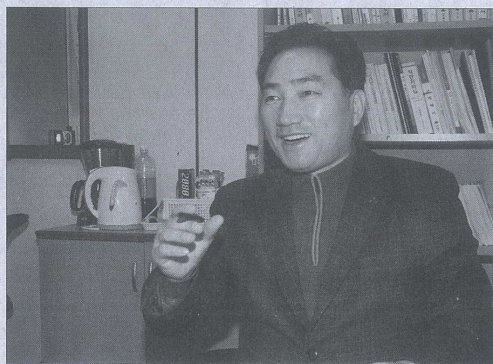
“4대, 6대에 이어 7대에도 주어진 책임 또한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정을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백균 의원의 말이다. 이정식·이용균 의원과 함께 특위를 구성한 이백균 위원장은 “강북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외간 형평문제 등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한다.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최고고도 특위는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 제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 내 토지주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자연경관지구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1층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 받고 있어 이를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환경의 합리적 개선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다.

▲7대 의정활동과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이 되도록 ‘소신’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강북주민을 위한 공익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내·외간 형평문제 등 최고고도지구내 재산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6대 활동기간 중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있다면?

-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했던 6대 후반기에 시의원에게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오전 정비사업과 북한산 백련사 입구 화장실 설치 등이 가장 보람된 일로 꼽을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북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991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의 고도제한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도 높이가 조정된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오는 4월 7일경 강북구 고도제한 지역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는 탁상행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현안, 혹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 백래골도로 확장공사 1차구간이 끝나고 2차구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삼흥연립 앞 건물보상이 끝나는 대로 철거하여 삼흥연립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인수동과 우이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인수초 중학교 부근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어린이공원과 복합건물(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 경로당,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타구에는 1~3개씩 있는 축구전용구장이 강북구에는 없어 축구동호인들이 타구로 이동해 경기를 하는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4대 때부터 주장해 온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7대에는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주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은?

- 우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강북중학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를 곧 시작하지만,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람스럽다. 우이동 시민의 광장 앞 도로확장공사에서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 있었는데 소나무를 중앙분리대형태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소나무 이설비용절감과 광릉수목원의 도로를 연상케 하여 운치 있는 곳으로 바꾼 것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의정활동시 꼭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각오와 구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난 의정자료와 구의 지난 업무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민이 원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민 역시 구와 지방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우리 정치인들을 조금씩 변하게 할 것이다.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정말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